

1949~1950년 주미한국대사관의 설치와 외교활동

홍준석

경북대학교 사학과 BK21 Four 참여대학원생, 한국현대사 전공

js_pdhhistory@naver.com

- I. 머리말
 - II. 주미한국대사관의 설치와 조직
 - III. 주미한국대사관의 역할과 외교활동
 - IV. 맺음말
-

저자는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한다.

I. 머리말

한미관계는 1882년 조선과 미국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관계를 맺은 조미 수호통상조약의 체결로 시작되었지만, 일본에 의한 대한제국 외교권 강탈과 식민지화에 따라서 외교적 단절을 겪게 된다.¹ 한·미 양국이 다시 본격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부터다. 두 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관계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의 활동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주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9년 3월 25일에 개설된 주미한국대사관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설립된 대사관으로 한국의 대미외교를 수행하는 기관 가운데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개설되기 이전까지 한국정부를 승인한 국가는 미국, 중화민국, 영국, 프랑스, 필리핀 5개국에 불과했다. 한국과 수교를 맺은 나라들이 적었기 때문에 한국외교에서 대미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였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유럽지역은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중화민국 역시도 일본과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전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필요한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였다.

주미한국대사관은 미국의 정치·행정 중심지인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1 물론 해방 이전에도 민간영역에서의 교류는 이루어졌다. 많은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미국 내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비록 미국정부는 1905년 이후 한국과의 관계가 종식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승만(李承晩)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관에 있는 이른바 '거중조정(居中調停, good offices)'의 조문에 의거하여 일본의 한국침략 상황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호소하였다.

있다. 미국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백악관을 비롯하여 국무부와 국방부, 미국의 대외경제원조를 담당하는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이하 약칭 ECA), 그리고 한국에 대한 원조법안을 처리하는 의회가 위치한 곳이다.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이 지금과 같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은 외교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이점이었다. 게다가 세계 각국의 재외공관이 워싱턴 D.C.에 있었기 때문에 주미대사관은 미국은 물론, 세계와 통할 수 있는 항구과도 같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미한국대사관을 다룬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주한 미국대사관과 초대 주한미국대사 무초(John J. Muccio)에 대한 연구들은 있지만², 같은 시기에 설치된 주미한국대사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주미한국대사관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미국의 대한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미관계사를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미한국대사관에 대한 역사적 연구로는 1949년부터 2003년까지 주미 한국대사관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살핀 오기창과 조봉완의 단행본이 유일하다.³ 오기창·조봉완의 연구는 한미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흐름, 18명 주미 한국대사들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역대 주미대사 명단과 재임기간, 대사관 재직 주요 외교관 명단, 한미관계 연표 등이 부록으로 제시되어, 기본적인 사실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다루고 있는 시간범위가 광범하고 한미관계사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편이며, 국내정

2 김도민, 「1948~50년 주한미대사관의 설치와 정무활동」, 『韓國史論』 59권(2013), 217~289쪽; 김도민, 「주한미대사관을 통해본 초기 한미 외교관계(1948~1950)」, 정용욱(편),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푸른역사, 2018), 411~440쪽; 이상호, 「초대 주한미국대사 무초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응」, 『亞細亞研究』 61권 1호(2018), 49~77쪽.

3 John Kie-chiang Oh and Bonnie Bongwan Cho Oh, *The Korean Embassy in America* (Seoul: Hollym, 2003).

치사에 대한 내용까지 곁들여지다보니 정작 주미한국대사관에 대한 서술은 풍부하지 않은 편이다.

주미한국대사관을 직접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1945~1953년 이승만의 대미외교에 관한 연구⁴와 1946~1952년 장면(張勉)의 외교활동에 관한 연구⁵, 장면의 일대기를 다룬 연구⁶ 등에서 주미한국대사관의 외교활동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간략하여 실상을 소상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미한국대사관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이 어떻게 창설되었으며, 정부 수립 직후 어떤 외교활동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의 시기는 대사관 설치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49년 1월부터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이다. 이 기간에 주미대사관의 외교관들은 대사관 청사 마련에서부터 직원 조직 등과 같은 대사관 외교의 기초를 닦는 준비 작업에서부터 경제원조 요청, 주한 미군 철수에 따른 방위문제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친선관계 수립 확대 등과 같은 당시 한국정부의 주요 국정 현안들에 관한 외교활동을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소장한 '이승만문서'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을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대통령과 주미한국대사관 인사들이 서로 주고 받은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관련자들의 활동과 의도가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라는 점에서 유용하다.⁷ 이와 더불어 주미대사 장면과 그의

4 李昊宰, 『韓國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 李承晩外交와 美國政策의 反省』(法文社, 2000 [1969]).

5 홍순호, 「장면 외교의 명암(1946~1952)」, 『京畿史學』 5권(2001), 141~186쪽.

6 허동현, 『장면: 건국·외교·민주의 선구자』(분도출판사, 1999), 84~105쪽.

7 國史編纂委員會(편), 『大韓民國國史資料集 28: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 1(1944~1948)』(國史

비서 진 스캇(Jean Scott)이 남긴 수첩·메모칩과 더불어 각종 문건들이 수록된 자료집⁸을 통해서 주미대사의 주요 일정과 접촉 인사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밖에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에 근무했던 장면과 한표옥 등의 회고를 통해서 당사자들의 입장과 당대 상황을 파악하였다.⁹

II. 주미한국대사관의 설치와 조직

1. 한국정부의 행정권 인수와 한미관계의 재설정

주미한국대사관이 설치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었다. 이는 한국의 국가주권이 회복되고 한국정부가 국제적 승인을 획득해 나가는 역사적 흐름과 관련이 있다. 우선, 미군통치 종료와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미군정청에서 새로운 한국정부로 행정권 이양이 선행되어야 했다. 한국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인수하고 정부재정을 확보해야 비로소 재외공관 설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한미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재설정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양국 간 대사관급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국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연합의 승인을 획득하고,

編纂委員會, 1996a); 國史編纂委員會(편), 『大韓民國史資料集 29: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 2(1949~1950)』(國史編纂委員會, 1996b); 國史編纂委員會(편), 『大韓民國史資料集 37: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 10(1961~1965·기타)』(國史編纂委員會, 1997).

- 8 허동현·태수경(편), 『장면, 수첩에 세상을 담다Ⅱ(1949-1951): 6·25전쟁, 호국의 기억』(경인문화사, 2019).
- 9 장면, 『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張勉 博士 回顧錄』(가톨릭출판사, 1999[1967]); 張勉, 「韓國外交 荒蕪地 開拓을 回顧한다」, 《京鄉新聞》, 1958년 8월 15일자; 韓豹瑬, 『韓美外交요람기』(中央日報社, 1984); 한표옥, 『이승만과 한미외교』(중앙일보사, 1996).

이를 근거로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법적승인(de jure recognition)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미국 전략사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 약칭 OSS)의 부책임자 및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의 정치고문을 지낸 바 있는 굿펠로우(Preston M. Goodfellow)가 이승만에게 미국주재 한국대사관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도, 이승만은 자신도 대사관이 설치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정부와 부서의 권한이 이양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고 답신하였다. 특히 한국정부가 재무에 관한 권한을 아직 인수하지 않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관이 설치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였다.¹⁰

그래서 정부 수립 선포 바로 다음 날인 8월 16일부터 정권 이양 전반에 대한 한·미 간 공식회담이 시작되어 9월 11일에 이른바 한미재정재산협정이 조인되고 9월 23일에 발효됨으로써 한국정부의 행정기능이 작동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각 부처별 이양수속이 완료됨으로써 한국정부는 실질적인 행정권을 확보하고 정부 조직과 운영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¹¹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1948년 8월 12일에 미국 국무부는 한국정부를 사실상 승인(de facto recognition)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한국정부에 대한 ‘전면(full)’이 아닌 ‘제한적(limited)’ 승인을 의미했다. 미국정부는 제3차 국제연합 총회 이후로 공식 승인을 미루었는데,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새로운 한국정부를 승인하는 것에 부정·소극적인 일부 국제연합 회원국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²

10 「Preston M. Goodfellow → Syngman Rhee」(1948년 9월 2일), 「Syngman Rhee → Preston M. Goodfellow」(1948년 9월 21일), 國史編纂委員會(편), 앞의 책(1996a), 467, 474~475쪽.

11 금보운, 「한국정부 수립시기 한미 간 행정권 이양과정과 성격: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제166호(2014), 337~383쪽.

한국정부는 1948년 12월 12일 파리의 샤요궁(Palais de Chaillot)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국제연합의 승인을 획득하였다. 국제연합 총회결의안 제195(III)호 제9항에는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들과 그밖에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과의 관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¹³ 한국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수립해 나가게 되었다. 1949년 1월 1일, 미국대통령 트루먼(Harry S. Truman)은 한국정부에 대해 완전 승인(full recognition)을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¹⁴ 이는 1948년 8월 12일 국무부가 새로운 한국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승인을 한다는 성명에서 더 발전된 개념으로 법률적 승인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했다.¹⁵ 한국정부는

-
- 12 중화민국, 필리핀, 엘살바도르, 시리아는 국제연합이 한국정부를 승인하거나 한국이 국제연합에 가입한 이후 한국정부를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캐나다는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한국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승인(de facto recognition)'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으며, 코리아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를 의미하는 'National Government of Korea' 또는 'All Korea'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국제현실을 의식하면서도 자국의 국익과 새로운 한국정부의 위상을 고려해서 우선 한국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승인'을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영호, 「미국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정책에 관한 연구: 태평양전쟁기와 미 군정기 미국의 승인 정책을 중심으로」, 『軍史』 제92호(2014), 233~263쪽.
- 13 "A/RES/293,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December 12, 1948,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7~48*(New York: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ited Nations, 1949), p. 290.
- 1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Recognizes Republic of Korea [Released to the press by the White House January 1]",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XX*, No. 497, January 9, 1949(Washington, D.C.: Bureau of Public Affairs, 1949), pp. 59~60.
- 15 국제법 연구에 따르면, 어느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신생국 정부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의심되거나 정식승인을 취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판단하면 일단 '사실상 승인(de facto recognition)'만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승인을 받았던 정부가 이후에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법률상 승인을 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중화민국, 필리핀 등이 한국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에 외교공관을 설립하는 업무에 착수하였다.

2. 주미한국대사관의 설치과정

초대 주미한국대사에는 장면이 내정되었는데, 이는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깜짝 발표였다. 장면은 1948년 국제연합 외교를 마친 후 로마교황청(Curia Romana)을 예방한 다음, 1948년 12월 26일에 미국에 도착하였다. 1949년 1월 4일, 한국의 국제연합 외교에 도움을 준 미국에 사의(謝意)를 표하고 트루먼 미국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한 협의를 위해서 국무부 의전국을 방문하였다.¹⁶ 이때 장면은 국무부 직원으로부터 “아직 귀국하지 말고 잠깐 대기하고 있으라”는 이승만의 전보를 받았다. 그래서 하루를 기다린 장면은 1월 5일에 기자들로부터 돌연 “초대 주미대사로서의 소감을 말해 달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대사에 내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¹⁷ 다음 날 외무부는 정식으로 장면을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로 발령한다고 통보하였다.¹⁸ 후일 장면은 “돌연한 대사 발령에 어리둥절”했고 “외교관 생활에는 전연 생소한 사람이었으니 앞길이 막막할 따름이었다”라

승인을 했다가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한국정부를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결의를 담은 제195호가 채택된 이후에 한국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정인섭, 「승인제도」, 『신국제법 강의 이론과 사례』 제10판(박영사, 2020), 182~183쪽.

- 16 張勉, 「韓國外交 荒蕪地 開拓을 回顧한다」, 《京鄉新聞》, 1958년 8월 15일자.
- 17 장면과 함께 국제연합 외교를 함께 했던 장기영(張基永)은 1949년 초에 교황을 알현한 뒤 파리에서 “주미 대사 임명, 빨리 오라”는 전보를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어 미국에서 주미대사 내정 통보를 받았다는 장면의 회고와는 장소상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장면은 이미 1948년 12월 26일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파리에서 장면이 주미대사 내정 통보를 받았다는 장기영의 회고는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영, 「초인적인 외교 역량, 윤석 기념회(편), 앞의 책(1999 [1967]), 441쪽.
- 18 외무부가 장면을 주미대사에 임명한다고 공식발표한 날짜는 1949년 2월 2일이었다. 「駐美全權大使, 張勉 氏를 任命」, 《東光新聞》, 1949년 2월 6일자.

고 하고 주미한국대사관 개설과 초창기 외교활동에 대해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에 비유하며 당시 상황과 심경을 회고하였다.¹⁹ 장면의 친필기록장에는 “한국정부 Special Representative로 피임, 귀국 예정을 중지코 대사관 개설 준비 착수”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⁰ 당장 대사관 건물도 없어 우선 이승만과 오랫동안 친교하면서 그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스태거스(John W. Stagers) 소유의 컬럼비아빌딩(Columbia Building) 3층에 방 3개를 임대하여 임시공관으로 삼았다. 이곳은 본래 주미외교위원부 사무실로 사용되던 장소였다.²¹

장면이 대사가 아닌, 특별대표로 내정된 것은 아직까지 한·미 간 대사관급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사관이 설치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장면이 이끄는 외교사절의 본부 명칭도 대사관이 아닌 주미한국특사관(駐美韓國特使館)으로 소개되었다.²² 이에 1949년 1월 미국정부는 외무부에 주미한국특사관과 주한미국특사관을 각각 대사관으로 승격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1949년 2월 14일 주한미국특사관의 참사관 드럼라이트(Everett F. Drumright)는 임병직(林炳稷) 외무장관에게 재차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였다.²³ 이에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락한다고 회답하였다.²⁴

19 張勉, 「韓國外交 荒蕪地 開拓을 回顧한다」, 《京鄉新聞》, 1958년 8월 15일자.

20 장면, 「가족 및(及) 국내사정/국제정세」, 태수경·허동현(편), 『장면 시대를 기록하다』(샘터사, 2014), 102쪽.

21 그러나 대사관으로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면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새로운 대사관 건물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그래서 1949년 6월경 대사관용 건물을 새로 매입하여 증축·수리를 하고 1950년 봄에 대사관 공관을 이전하였다. 張勉, 「韓國外交 荒蕪地 開拓을 回顧한다」, 《京鄉新聞》, 1958년 8월 15일자.

22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재외공관은 1948년 11월 7일 난징(南京)에 개설된 ‘대한민국주중특사관(大韓民國駐中特使館)’이다.

23 「韓美兩國의 特使館 大使館 昇格을 美要請」《東亞日報》, 1949년 2월 20일자; 「韓美間大使 交換 特使館의 昇格을 要請」, 《自由新聞》, 1949년 2월 20일자.

24 「외무부, 주한미특사관을 주한미대사관으로 승격한다는 수락 서한 전달」, 《서울신문》, 1949년 2월 22일자, 國史編纂委員會(편), 『資料大韓民國史 제10권: 1949년 1~2』

대사관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신입 한국대사가 미국대통령에게 신임장(credential)을 제정(提呈)하는 예식을 거쳐야 했다. 1949년 3월 21일에 장면은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을 만나 신임장 제정 및 경제원조에 대해서 상의하였다.²⁵ 그리고 신임장을 제정하기 전에 장면 대사의 인사말이 국무부에 발송되었고, 트루먼 미국대통령의 답사도 전달되었다. 이때 장면의 인사말은 국무부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Department of State Bulletin*²⁶에 실렸다.

이에 따라서 1949년 3월 25일 오전 10시에 백악관 오벌오피스(Oval Office)에서 장면이 트루먼 미국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정식으로 주미한국대사관이 설치되었다. 1905년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폐쇄된 지 44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오늘날 주미대사관에서는 3월 25일을 공식적인 대사관 개설일로 삼고 있다.²⁷

3. 주미한국대사관의 인사조직

정부 수립 직후였기 때문에 외교관 직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1948년 11월 17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외교관 및 영사관의 직제>가 제정되었다.²⁸ 주미한국대사관 설치 당시 외교관 직제 및 외교관 명단은 표1과 같다.

月』(國史編纂委員會, 1999), 533쪽.

25 허동현·태수경(편), 앞의 책(2019), 60~61쪽.

2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Korean Ambassador Presents Credentials [Released to the press March 25]",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XX*, No. 497, April 3, 1949(Washington, D.C.: Bureau of Public Affairs, 1949), p. 434.

27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s://usa.mofa.go.kr/us-ko/wpge/m_4472/contents.do, 검색일: 2020년 11월 13일); 外務部, 『外務行政의 十年』(外務部, 1959), 6쪽; John Kie-chiang Oh and Bonnie Bongwan Cho Oh, *op. cit.*(2003), p. 49, p. 295.

28 1948년 11월 17일, 대통령령 제29호로 외교관 및 영사관의 직제가 제정되었다. 법제처, <외교관급영사관직제>, 1948년 11월 17일 시행, 대통령령 제29호, 1948년

표1-주미한국대사관 설치 당시 외교관 직제 및 담당인사

직명	담당인사
특명전권대사	장면
특명전권공사	
참사관	김세선
일등서기관	한표욱
이등서기관	
삼등서기관	
외교관보	

* 여백으로 남아 있는 담당인사란은 공석

대사관 설치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에 배속된 외교관은 3명뿐이었다.²⁹ 한 나라의 대사관으로는 그 인원이 대단히 적었는데, 이는 정부 수립 직후 한국정부의 열악한 사정 때문이었다. 임병직 외무장관은 외교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움을 토로했으며³⁰, 예산 부족으로 대사관 경비도 턱없이 부족했다.³¹ 1949년 1월부터 1950년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주미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주요 외교관들의 명단과 이력을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11월 17일 제정. 이 법령은 1958년에 폐지되어 <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로 대체되었다.

29 韓豹頊, 앞의 책(1984), 48쪽.

30 林炳稷, 『臨政에서 印度까지: 林炳稷 外交回顧錄』(女苑社, 1966), 318, 334쪽.

31 워싱턴 D.C.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재외공관 중에서 주미엘살바도르대사관이 가장 예산과 규모가 작았는데, 이 역시도 주미한국대사관 인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한다.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Seoul: Panmun Book Company, 1978), p. 218.

표2-6·25전쟁 발발 이전 대사관 주요 외교관 일람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정부 수립 이전 주요 이력	정부 수립 이후 주요 이력
특명전권대사	장면	1899년 (서울)	맨해튼대학 졸업 동성상업학교 교장 민주의원, 입법의원	초대 주미대사 제헌·5대 국회의원 2대·7대 국무총리 4대 부통령
참사관	김세선	1902년 (강원도 철원)	컬럼비아대학교 석사 삼일신보사 발기인 북미유학생총회 부회장 주미외교위원회 활동	주미대사관 참사관
일등서기관	한표옥	1916년 (함경남도 북청)	연희전문학교 졸업 시러큐스대학교 학사 하버드대학교 석사 주미외교위원회 활동	주미대사관 전권공사 주제네바대사 주태국대사(주몰디브대사 겸임) 주오스트리아대사 주영대사
삼등서기관	최운상	1925년 (황해도 은율)	서울대 졸업	주인도대사 주이집트대사 주모로코대사 주자메이카대사
삼등서기관	오일옥	1923년 (서울)	보성전문학교 졸업	경무대 비서 서울시장 비서 서울상공주식회사 전무이사

본래 주미대사 후보군에는 조병옥(趙炳玉)과 임병직(林炳稷)이 물망에 올라 있었다. 이승만은 조병옥이 주미대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³², 조병옥을 대통령특사 겸 국제연합대표단 단장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독립운동을 함께 한 임병직을 주미대사에 임명하고자 했지만, “하위직급에 있던 자가 고위직을 맡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³³

32 「Syngman Rhee → Preston M. Goodfellow」(1948년 9월 21일), 國史編纂委員會(편), 앞의 책(1996a), 474~476쪽.

결국 장면이 대한민국의 초대 주미대사로 낙점되었는데, 이승만은 처음에 장면을 대사로 지명할 때도 나중에 교체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장면이 대사에 임명된 이유에 대해서 이승만의 고문 올리버(Robert T. Oliver)와 일등서기관 한표옥은 가톨릭 신자인 장면이 대사가 되면 가톨릭계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보았다.³⁴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1948년 제3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한국대표단 수석대표로서의 활약도 주미대사에 발탁된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³⁵ 당시 국제연합의 한국정부 승인안건은 세계 각국의 국익과 정세판단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장면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외교관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당시 한국외교의 최대 현안이었던 정부승인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그의 외교능력에 대한 인정이 주미대사 내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면은 미국인들에게 좋은 평판과 명성을 지닌 가톨릭 교육자로 알려져 있었다.³⁶ 이승만은 주미대사 임명에 관한 건은 실제로 대부분 미국 국무부가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평했는데³⁷, 바꿔 말하면 미국정부가

33 「Syngman Rhee → Robert T. Oliver」(1948년 11월 5일), 國史編纂委員會(편), 앞의 책(1997), 88쪽.

34 한표옥, 앞의 책(1996), 44~45, 66~67쪽. 주미대사관 참사관을 지낸 김세선도 장면이 가톨릭 신자여서 미국정부 내 가톨릭 신도 비중이 높은 아일랜드계 인사들을 접촉하기 용이했다고 회고했다. 조종무, 「뉴욕한인 125년 (31) 워싱턴에 주미 한국 대사관 개설」, 《한국일보》, 2009년 6월 8일자.

35 장면의 국제연합 승인외교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 허동현, 「대한민국 승인을 위한 수석대표 장면의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1집(2009), 337~375쪽; 허동현, 「대한민국의 건국외교와 유엔(UN)」, 『숭실사학』 제30집(2013), 253~280쪽.

36 도널드 스텐 맥도널드(저), 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역), 『한미관계 20년사 (1945~1965년): 해방에서 자립까지』(도서출판 한울, 2001), 250쪽.

37 「Syngman Rhee → Robert T. Oliver」(1948년 11월 5일), 國史編纂委員會(편), 앞의

그만큼 장면을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면은 1918년 성심신학교 재학 시절에 노기남(盧基南) 가톨릭 주교와 사제의 연을 맺었고, 노기남의 추천과 하지의 지명으로 미군정기 민주의원과 입법의원에서 활동하였다. 노기남이 미군정 측 사람들과 접촉할 때는 언제나 장면이 관계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그는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과 군정장관 아놀드(Archibold V. Arnold) 소장, 정치고문 버치(Leonard M. Bertsch) 중위 등 미군정 당국자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남감리회 선교사 출신으로 미군정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 책임자였던 피셔(J. Earnest Fisher)는 장면의 정치입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하지와 아놀드, 미소공동위원회 수석대표 브라운(Albert E. Brown)에 대한 버치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회고했다.³⁸

김세선(金世旋)과 한표옥(韓豹瑱)은 각각 참사관, 일등서기관을 맡아서 장면 대사 다음으로 비중 있는 직위에 있었다. 이들은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재미 한인들이며, 이승만과 가까운 인사들로 이전에 주미외교위원부에서 활동하였다.

참사관에 임명된 김세선은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学)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26년 미국 유학을 하여 1930년 루이스 인스티튜트(Lewis Institute, 현 일리노이공과대학교)를 졸업, 1933년에는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해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본제물건을 도매하는 사업을 했다.³⁹ 그는 미국 유학 중에 이상재(李商在)를 통해서

책(1997), 88쪽.

38 J. Earnest Fisher, "JOHN M. CHANG Ph.D.(1889~1966): Reluctant but able political leader", *PIONEERS of MODERN KOREA*(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7), p. 69.

39 김세선의 이력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趙鐘武, 「金世旋」, 『아메리카 대륙의 韓人 風雲兒들(上)』(朝鮮日報社, 1987), 324~325쪽; 최병현, 「교인 명부」,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뉴욕한인교회70년사』(김은샘, 1992), 477쪽; 國家報勳處(편), 「김세선」, 『獨立有功者 功勳錄: 2016年度 褒賞者』第23卷(국가보훈처, 2017),

이승만을 알게 되었다. 1942년 이승만의 추천으로 미국 정보조정국 (Coordinator of Information, 약칭 COI)의 요원으로 선발되었고, 1944년에는 주미외교위원회 협찬회 경제부장으로 인선되었다.⁴⁰ 장면의 회고에 의하면, 미국인 고문 스태거스가 김세선을 추천하여 대사관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⁴¹

일등서기관에는 한표옥이 임명되었다. 1949년 1월에 한표옥은 미시간대학교에서 박사과정생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장면 박사 곧 주미대사로 가니 워싱턴으로 가서 장박사를 보좌해 일해주시기 바란다”는 이승만의 서신을 받고 주미대사관 일등서기관으로 발령되었다.⁴² 그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6년 도미(渡美) 유학하여 1941년에 시러큐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 1947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학석사, 1963년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의 장인 최상호(崔相浩)는 황성기독교청년회 간사로 있으면서 이승만과 교유하였는데, 1914년 하와이 한인 YMCA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승만이 최상호를 총무로 초빙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표옥은 이승만이 자신을 각별히 여겼던 것 같다고 회고하였다.⁴³ 1942년 그는 이승만의 추천을 받아 미국 COI에 의해 한인 공작원으로

50~51쪽; 「김세선씨난 도미후 즉시 상륙」, 《新韓民報》, 1926년 4월 22일자; 「金世璇君渡米」, 《東亞日報》, 1926년 2월 18일자; 「未國『코』大學의 朝鮮文化研究會」, 《朝鮮日報》, 1933년 9월 19일자.

40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역사비평사, 2005), 251~252쪽; 「주미외교위원회 통신 제76호(1944. 6. 15)」,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9. 주미외교위원회 I』(국사편찬위원회, 2007), 435쪽.

41 張勉, 「韓國外交 荒蕪地 開拓을 回顧한다」, 《京鄉新聞》, 1958년 8월 15일자.

42 한표옥, 앞의 책(1996), 44~45쪽. 한표옥의 배우자 최정림(崔貞琳)의 회고에 의하면, 장면도 이승만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최정림, 『외교관의 아내, 그 특별한 행복』(여성신문사, 1998), 12쪽.

43 이덕희, 「이승만의 종교활동과 교육활동」, 오영섭·홍선표 외, 『이승만과 하와이 한인사회』(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10~11쪽; 한표옥, 앞의 책(1996), 30~31쪽.

선발되었으며, 1944년에는 주미외교위원부 협찬회 정치부 협찬원으로 발탁되었다.⁴⁴

업무 간 경계가 명확했던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특기에 맞추어 대사관의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김세선은 이론경제와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했던 인물로, 대사관에서 물자구매 및 경제원조 교섭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는 주로 원면과 곡물을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미국으로부터 무기지원을 받는 일도 했다.⁴⁵ 정치학을 전공한 한표옥은 대사관에서 주로 정무(政務)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그는 미국 국내정세와 국제정세에 관한 각종 신문과 뉴스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장면 대사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들과 접촉하여 한국정부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거나 국제기구 가입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⁴⁶

그리고 대사관 개설 이후 후속인사로 최운상(崔雲祥)과 오일육(吳一六)이 삼등서기관으로 부임하였다.⁴⁷ 최운상은 서울대 법과대학 제1회 수석졸업생으로, 외무부에서 실시한 외무관 모집 시험에도 수석으로 합격하여 1948년 11월 4일 외무부에 입부하였다.⁴⁸ 1949년 4월 27일에 주미대사관에 부임하여⁴⁹ 외교관보와 삼등서기관을 지냈다.⁵⁰ 오일육은 조선후기 역관

44 정병준, 앞의 책(2005), 251쪽; 「주미외교위원부 통신 제76호(1944. 6. 15)」, 국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2007), 435쪽.

45 조종무, 「뉴욕한인 125년 (31) 워싱턴에 주미 한국대사관 개설」, 《한국일보》, 2009년 6월 8일자.

46 한표옥, 앞의 책(1996), 62~64쪽.

47 「駐美大使館書記 崔雲祥氏 赴任」, 《京鄉新聞》, 1949년 4월 25일자.

48 「外務官合格者發表」, 《大韓日報》, 1948년 11월 11일자; 「外務部辭令」, 《漢城日報》, 1948년 11월 12일자.

49 허동현·태수경(편), 앞의 책(2019), 74~75쪽; 1949년 4월 25일 오후 1시에 김포공항에서 출국하였다. 「駐美大使館 書記 崔雲祥氏 赴任」, 《京鄉新聞》, 1949년 4월 25일자.

50 1950년 2월 9~10일 양일 간 열린 재미한인대회를 보도한 기사에서는 최운상이

출신으로 당상관(堂上官)을 지낸 오경석(吳慶錫)의 손자이며, 1919년 이른바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인 오세창(吳世昌)의 막내아들(4남)이다.⁵¹ 그는 보성전문학교 상과(商科)를 졸업하고 이승만의 비서로 경무대(景武臺)에서 근무했으며, 이기봉(李起鵬) 서울시장의 비서를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² 그가 어떠한 경위로 주미대사관에 부임하게 되었고 언제까지 근무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미한국대사관의 고문으로 스태거스(John W. Stagers)와 윌리엄스(Jay Jerome Williams)가 있었다. 이들은 해방 이전부터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미국인들이다. 장면은 주미대사 내정 통보 소식을 듣고 "일제시하에 이박사가 주관하던 한국임시정부의 구미위원부가 시내 컬럼비안 빌딩 안에 있었다는 기억"을 떠올리고 그곳을 찾아 스태거스와 대사관 설치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도움을 구했다고 회고하였다.⁵³ 스태거스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로 미국세계무역수출입회사(American World Trade Export-Import Company, Inc.)의 대표를 지낸 사업가였다.⁵⁴

외교관보로 소개되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처음에 주미대사관의 외교관보였다가 삼등서기관으로 직위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在美韓人大會」, 《京鄉新聞》, 1950년 2월 22일자.

- 51 高麗大學校 校友會 (<https://kuaa.or.kr/bulletin/news.jsp?mode=view&idx=178>, 검색일 2020년 11월 21일).
- 52 「〈연합인터뷰〉葦滄 吳世昌선생 4남 吳一六씨」, 《연합뉴스》, 1999년 2월 24일자; 민족의 소리 동아방송(DBS) (https://dbs.donga.com/comm/view.php?r_id=00001&r_serial=01, 검색일: 2020년 11월 21일); 「(398)제26화 경무대 사계(25)」, 《中央日報》, 1972년 3월 3일자.
- 53 張勉, 「韓國外交 荒蕪地 開拓을 回顧한다」, 《京鄉新聞》, 1958년 8월 15일자. 장면이 스태거스를 만난 날짜는 미국현지 시간으로 1949년 1월 4일이다. 「장면 메모첩 1949년 1월 4일(화)」, 허동현·태수경(편), 앞의 책(2019), 32~33쪽.
- 54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to the Secretary of State"(Junly 7, 1947),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로 약함], 1947. *The Far East, Volume VI*(Washington, D.C.: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이하 U.S.G.P.O.로 약함], 1972), p. 692.

그는 주미외교위원부를 비롯해 이승만과 관계된 단체의 법률자문을 했고⁵⁵, 정부 수립 이후에도 주미한국대사관 고문으로 위촉되어 한국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갔다. 1949년 5월 스태거스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자, 대사인 장면이 직접 공항에서 배웅할 정도로 한국과 긴밀한 관계였다.⁵⁶ 스태거스는 미국의 대한경제원조 법안 처리 동향을 파악하거나⁵⁷, 한국 공군의 훈련을 지도할 미국의 군사고문을 초빙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교섭하는 등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⁵⁸

다음으로 윌리엄스는 통신사 INS(International News Service)를 운영하는 언론인으로 해방 이전에는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우면서 각종 선전문을 작성하고 언론사에 배포하여 한국문제를 여론에 환기시키는 일을 했다. 정부 수립 후에는 주미한국대사관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⁵⁹ 윌리엄스는 한국의 해군기지가 건설될 진해만(鎭海灣)을 직접 시찰하고 군사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섭 활동을 하였다. 비록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퇴역 해군제독 카우프만(James L. Kauffman)과 해군참모총장 덴펠드(Louis E. Denfeld)를 만나서 해군기지 건설과 해군장교 양성을 지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⁶⁰

1948년 제3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모운숙(毛允淑)은 스태거스와 윌리엄스를 미국정부와의 특수 파이프 역할을 맡아준 코리아 로비들이었다고 평가하였다.⁶¹ 두 미국인 고문의 활동은

55 「훌륭한 獨立國家 韓國의 明日에 期待」, 《自由新聞》, 1949년 6월 10일자.

56 「장면 메모첩 1949년 4월 23일(토)」, 허동현·태수경(편), 앞의 책(2019), 72~73쪽.

57 「? → John W. Stagers」(1949년 7월 11일), 이승만문서.

58 「John W. Stagers → John Myun Chang」(1949년 8월 3일), 이승만문서.

59 「Syngman Rhee → John Myun Chang」(1949년 9월 16일), 이승만문서.

60 「Jay Jerome Williams → John Myun Chang」(1949년 6월 17일), 國史編纂委員會(편), 앞의 책(1996b), 71~72쪽; 「Jay Jerome Williams → Louis E. Denfeld」(1949년 7월 7일), 國史編纂委員會(편), 앞의 책(1996b), 102~103쪽.

주로 한국이 미국과 접촉할 때 조력하는 역할을 했으며 활동분야는 어느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미한국대사관 초대 무관에는 1949년 2월 4일자로 이형근(李亨根) 육군준장이 임명되었다.⁶² 이전에는 황헌친(黃憲親)이 초대 무관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⁶³ 그에 앞서 이형근이 주미대사관 무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이형근은 미국과의 군사원조 교섭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데, 장면 대사, 조병옥 대통령특사 등과 함께 육군부 작전계획참모장 대리 웨드마이어를 만나 군사원조를 요청하였다. 다만, 1949년 6월 2일에 귀국했기 때문에 대사관 근무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⁶⁴, 그 뒤에 한동안 후속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51년 12월 20일부로 황헌친이 주미대사관 무관으로 발령된 것으로 보인다.⁶⁵

이밖에 1950년 3월 18일부로 외자구매처(外資購買處) 공무원이던 박원규(朴元圭), 오철은(吳哲殷), 이성범(李成範)이 주미한국대사관 정부구매관(政府購買官)으로 발령되어 그해 4월에 부임하였다.⁶⁶ 이들은 물자 구입 및 원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사관에 파견된 것이다. 그리고 진

61 朴實, 『韓國外交秘史』(麒麟苑, 1980), 96쪽.

62 「李亨根 准將 駐美武官 任命」, 《東亞日報》, 1949년 3월 4일자; 「駐美大使館附武官 李亨根 準將을 決定」, 《朝鮮日報》 1949년 3월 4일자.

63 황헌친 구술, 나종남·김은비 면담, 2011년 2월 25일~4월 1일, 전쟁기념관 창군동우회 사무실, 『한국군 초기 역사를 듣다: 군사영어학교 출신 예비역 장성의 구술』(국사편찬위원회, 2012), 10쪽, 296쪽.

64 이형근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채병덕(蔡秉德) 육군참모총장이 자신을 미국에 두기 위해서 이범석(李範奭)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에게 간청하여 주미대사관 무관으로 발령시킨 것이라고 회고하였다. 李亨根, 『軍番1번의 외길 人生: 李亨根 回顧錄』(中央日報社, 1994), 37~41쪽

65 「政府人事 發令」, 《東亞日報》, 1951년 12월 23일자.

66 「政府人事(十八日附)」, 《工業新聞》, 1950년 3월 25일자; 「政府人事」, 《朝鮮日報》, 1950년 3월 25일자; 「駐美外資購買官八日華盛頓向發」, 《商工日報》, 1950년 4월 7일자; 「購買事務移管進捗中」, 《東亞日報》, 1950년 4월 8일자.

스캇을 비롯한 현지인 비서들과 대사관 운전기사들이 무명(無名)의 헌신을 하였다.

이상의 주미한국대사관 인사를 살펴보면, 특명전권대사 장면, 삼등서기관 최운상, 무관 이형근, 정부구매관을 제외하고 참서관 김세선, 일등서기관 한표육, 미국인 고문 스태거스와 윌리엄스, 삼등서기관 오일육은 이승만과 인연이 있었다. 특히 오일육을 제외한 김세선, 한표육, 스태거스, 윌리엄스는 주미외교위원회 시절부터 활동했던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주미외교위원회 혹은 그 이전부터 워싱턴 D.C.에서 활동하였고, 현지 사정을 비교적 알고 있고 각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워싱턴 외교'의 경험이 없는 장면 대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Ⅲ. 주미한국대사관의 역할과 외교활동

1. 경제원조 촉진을 위한 외교활동

대한민국정부 수립 직후 경제상황은 대단히 취약한 상태였다. 전력·물자의 부족, 재정적자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누적, 대량 실업 상태 등으로 경제적 혼란이 심각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출범한 한국정부는 국가의 안정과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 독자적인 경제개발 계획 준비에 착수하였고, 1949년 4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물동(物動)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경제계획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당시 국부(國富)는 빈약한 반면에 정부행정의 구축, 군대 창설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곳곳에서 재원이 필요하였다. 한국정부는 경제적으로 비자립 상태였기 때문에 대외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국가건설과 민생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미국의 지원을 획득하는 것이 한국외교의 주요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되었다.

1948년 4월 3일 미국의회에서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이 통과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미국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로 ECA가 설치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한국이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서 한국주재 ECA가 1949년 1월 1일에 설치되어 미국 육군부로부터 원조에 관한 사무를 넘겨받았다.

공교롭게도 장면이 미국주재 특별대표에 임명된 1949년 1월 5일에 ECA가 대한경제원조부흥계획을 발표하였다.⁶⁷ 물론 원조를 집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정부의 권한이지만, 원조정책의 방향과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해야 할 몫이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워싱턴 D.C.에 소재한 대외원조를 집행·관장하는 ECA 및 국무부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그 사정을 파악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당시 장면의 수첩에는 ECA의 한국경제원조부흥계획 실시를 발표한 사실이나 ECA 한국지부장 번스(Arthur C. Bunce)의 한국경제 문제에 대한 입장, ECA 한국국장 존슨(Edgar A. J. Johnson)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하여 한국경제에 대해 발표한 내용,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각각 대한경제원조안이 통과된 사실 등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에 대한 일련의 처리과정과 동향이 기록되어 있다.⁶⁸ 장면은 ECA의 원조정책의 방향과 일정을 파악하고 대한경제원조에 관한 소식과 진행상황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ECA 관계자와 접촉하여 경제원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외교활동을 벌여 나갔다.

67 「一億二千萬弗 復興案, 一月一日부터 實施」, 《東亞日報》, 1949년 1월 7일자.

68 허동현·태수경(편), 앞의 책(2019), 34~35, 66~67, 90~91, 98~99, 102~103쪽.

1949년 2월 25일, 장면은 ECA 한국국장 존슨과 면담하여 경제원조에 대해 논의하였다.⁶⁹ 당시 존슨은 한국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한을 앞두고 있었다.⁷⁰ 이때 ECA가 조사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의 전력 상황과 텅스텐 광산, 석탄 등 에너지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⁷¹ 또한 장면은 ECA의 실무책임자인 호프만(Paul G. Hoffman)과 면담하여 경제원조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에 비료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⁷²

ECA가 작성한 원조계획안은 재정국의 승인과 예산국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1949년 6월 7일에 총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법안으로 미국의회에 제출되었다. 미국의회가 한국에 대한경제원조안을 상정한 다음날인 6월 8일, 주미대사 장면은 미국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담은 글을 발표하였다.⁷³ ECA 한국국장 존슨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하여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면은 사전에 두 차례에 걸쳐 존슨과 경제원조에 대해 상의하였다.⁷⁴ 존슨은 6월 20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만약 한국에 대한 원조프로그램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존경을 잃게 될 것이라고 증언함으로써 대한경제원조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⁷⁵ 1949년 11월 18일 장면은 다시 ECA 책임자 호프만

69 허동현·태수경(편), 앞의 책(2019), 52~53쪽.

70 존슨은 1949년 3월 11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였다. 『援助問題 現地調査次經協 존슨 韓國局長 來韓』, 《東亞日報》, 1949년 3월 10일자.

71 이현진, 「대한민국 정부의 ECA 원조 도입과 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집(1997), 194쪽.

72 허동현·태수경(편), 앞의 책(2019), 49~50, 56~57, 78~79쪽; 「미국 정부, 주한미국대사에 무초를 임명」, 《서울신문》, 1949년 3월 23일자, 國史編纂委員會(편), 『資料大韓民國史 제11권: 1949년 3~4월』(國史編纂委員會, 1999), 217~218쪽.

73 「張勉 주미한국대사, 對韓경제원조안 美의회 상정에 致謝」, 《연합신문》, 國史編纂委員會(편), 『資料大韓民國史 제12권: 1949년 5~6월』(國史編纂委員會, 1999), 477~478쪽.

74 「장면 메모집 1949년 4월 10일(월)」, 허동현·태수경(편), 앞의 책(2019), 68~69쪽.

75 이철순, 「한국전쟁 이전 미국의 한국의 가치에 대한 평가」, 『國際政治論叢』 제43집 1호(2003), 173쪽.

을 만났고, 이때 호프만으로부터 미국이 대한경제원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원에서 원조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다짐을 받았다.⁷⁶

그런데 이와 같은 주미한국대사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CA의 한국원조는 미국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ECA 원조법안을 승인했지만, 1950년 1월 19일에 하원 전체 표결에서 원조법안이 1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결과였다.⁷⁷ 이는 당시 미국의 해외 원조정책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 간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트루먼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원조정책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는 미국의회 내 반대 입장과 대외원조를 통해서 봉쇄정책을 실현하고 한국정부의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했던 행정부가 서로 갈등하면서 경제원조법안 처리는 진통을 겪었다.⁷⁸ 미국정부의 재정적자와 그 원인을 둘러싸고 트루먼행정부와 공화당이 대립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⁷⁹

거기에다 국무부가 1949년 8월 4일에 발간한 이른바 『중국백서』⁸⁰가 중국국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정부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76 「John Myun Chang → Syngman Rhee」(1949년 11월 23일), 이승만문서.

77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istory, Art & Archives (<https://history.house.gov/Congressional-Overview/Profiles/81st/>, 검색일: 2022년 8월 12일).

78 차상철, 『해방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지식산업사, 1991), 143~144쪽.

79 트루먼행정부에서는 공화당이 의회에서 감세 법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공화당에서는 행정부가 사회정책과 대외원조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예산 부족을 초래했으며 대외 문제보다는 대내 문제를 우선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高承濟, 「極東의 防衛와 美國의 民間資本」, 《外務月報》 제10호(1950년 4월호), 21쪽.

80 공식 문서명은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Chin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riod 1944-1949”이다. 이 보고서는 1967년 *The China White Paper*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he China White Paper: August 1949*, Vol. I, II(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7).

해석되어 논란이 일었다.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트루먼행정부의 대중국정책 실패로 '중국의 상실(loss of China)'을 초래했다고 논박하면서 대한원조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국민당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한국에 대한 원조안과 중화민국정부에 대한 지원을 서로 비교해봤을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일본 중심의 위계적 지역질서 재편을 주장하며 한국과 일본의 투자가 중복되는 것에 반대하고 일본경제를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원조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⁸¹

경제원조법안이 부결된 바로 다음 날인 1월 20일 장면은 애치슨 국무장관을 직접 만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애치슨은 의회 출석 일정이 있어 만나지 못하고 국무부 극동문제 차관보 버터워스(William W. Butterworth)와 동북아시아과 관계자 윌리엄스(John Z. Williams)와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면은 한국에 대한 원조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버터워스가 그와 같은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장면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믿겠다고 말했다.⁸² 이 날 오후에 장면은 애치슨 국무장관과 통화하여 하원에서 ECA의 한국경제원조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재차 전달하였다. 이에 애치슨은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경제원조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였다.⁸³

1950년 1월 21일, 트루먼은 의회가 원조법안을 부결시킨 사태에 대해

81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창비, 2014), 90~93쪽.

82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Mr. John Z. Williams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January 20, 1950),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50, Korea, Volume VII*(Washington, D.C.: U.S.G.P.O., 1976), pp. 11~14.

83 "Memorandum of Conversation with the Ambassador of Korea, Mr. John Myun Chang, and Others"(January 28, 1950), Truman Library 소장문서.

유감을 표명하고 의회가 조속히 법안을 재심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⁸⁴ 그리하여 1950년 2월 14일, 가까스로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대한원조법안이 통과되었다. 미국의회의 반대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원조 법안처리와 실행이 지연되었고 이후 6·25전쟁의 발발로 인해 원조가 바로 집행되지는 못했지만, 주미한국대사관은 미국의 대한원조법안이 통과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한국에 대한 원조결정은 미국이 하는 것이지만, 주미한국대사관은 미국의 원조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본국에 보고하였으며, 한국을 대표하여 미국정부에 한국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거듭 원조를 요청하여 대한원조법안이 통과되는데 일조하였다.

2. 군사지원 요청과 안보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

정부 수립 직후부터 한국정부는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주한 미군의 철수가 현실화되고 38도선 접경지역에서는 군사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국공내전(國共內戰)의 상황 등으로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주한 미군 철군으로 인한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한국정부 수립 직후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1949년 4월부터 주한 미군 철수가 재개되어 5월 28일에 군사고문단을 비롯한 소수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병력의 철수 완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첫째는 미국정부에 군사원조를 요청하는 것과 둘째는 안보동맹·조약

84 "Truman to Ask Reappraisal of Korean Aid Bill", *The Sunday Star*, January 22, 1950, p. 1.

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주한 미군이 철군하기 직전인 1949년 5월 중순에 이승만은 철군 대비안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미국이 선택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내용은 무초 주한미국대사가 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대서양조약(Atlantic Pact)과 유사한 태평양조약(Pacific Pact)을 체결해줄 것, 둘째, 침략국가로부터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 또는 다른 국가들까지 포함한 상호방위조약의 체결해줄 것, 셋째, 미국정부가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⁸⁵ 주미한국대사관의 군사외교는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을 미국에 요청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49년 4월 2일, 장면은 대통령특사 조병옥과 함께 육군부 작전계획참모장 대리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를 만나 한국이 처해있는 안보상황과 한국 방위에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군사원조를 강력히 호소하였다. 같은 날, 미국 상원의원 노랜드(William F. Knowland)를 만나 한국의 안보상황을 설명하고 군사원조를 요청하고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4월 5일에는 미국하원 외교분과위원장 키(John Kee)를 만나 군사원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태평양동맹 체결을 제안하였다.⁸⁶

원래 태평양동맹안은 필리핀대통령 퀴리노(Elpidio Quirino)의 구상이었는데, 한국도 이에 호응하여 미국과 태평양연안 국가들의 집단안보체제 수립을 추진한 것이다. 장면은 주미대사로 있으면서 대통령특사로 선발되어 1950년 4월 10일부터 5월 7일까지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순방하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약칭

85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May 16, 1949), U.S. Department of State, *FRUS, 1949, The Far East and Australia, Volume VII, Part A*(Washington, D.C.: U.S.G.P.O., 1976), pp. 1023~1024.

86 「John Myun Chang → Syngman Rhee」(1949년 4월 6일), 國史編纂委員會(편), 앞의 책(1996b), 42~43쪽; 李昊宰, 앞의 책(2000[1969]), 365쪽.

NATO)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조약을 아시아의 반공국가들 사이에서도 추진, 협의하기 위해서 친선사절로 파견된 것이었다.⁸⁷ 당시 한국은 필리핀과 수교를 맺기는 했지만 상주공관이 설치되지 않았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는 아직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주미 대사 장면이 필리핀대통령, 오스트레일리아총독, 뉴질랜드외무장관을 차례로 접견하고 태평양연안 국가들의 집단안보체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⁸⁸ 현지 언론에서 장면이 이끄는 특사단의 활동을 보도하여 주목을 사기도 했으나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⁸⁹

1949년 6월 27일에는 장면이 트루먼 미국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주한 미군 철수의 문제점과 군사원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장면은 트루먼에게 주한 미군이 철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만약 미국이 그대로 철군하게 된다면 우선 한국에 충분한 무기와 장비를 공급해주고 유사시에 미군의 군사지원을 약속해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한·미 간 통상조약과 태평양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⁹⁰

그러나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태평양동맹 구상⁹¹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87 이승만은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과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연안 국가들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일본의 참여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Syngman Rhee → John Myun Chang」(1950년 3월 8일), 國史編纂委員會(편), 앞의 책(1996b), pp. 280~281.

88 「태평양동맹 결성 외교 차 뉴질랜드·호주·필리핀 순방 일정(1950. 4. 10~5. 9)」, 허동현·태수경(편), 앞의 책(2019), 68~69쪽.

89 허동현, 앞의 책(1999), 102~103쪽.

90 「John Myun Chang → Syngman Rhee」(1949년 6월 27일), 國史編纂委員會(편), 앞의 책(1996b), 83~87쪽.

91 6·25전쟁 이전 태평양동맹의 구상과 전개과정에 대한 냉전사 또는 국제관계사 접근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Myongsob Kim, "Prologue of the Asia-Pacific Community: Betrayed and Declined Asian Initiatives for Region-building", *Korea Observer* Vol. X X VII, No. 4(1996), pp. 529-587; Myongsob Kim, "Declined Invitation by Empire: The Aborted Pacific Pact and the Unsolved Issue of Regional

태평양연안 국가들은 미국이 집단안보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부 국가들은 주변국 군대가 자국영토에 파견되는 것을 경계하여 태평양동맹 구상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⁹²,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승인했던 인도, 버마, 인도네시아는 태평양동맹에 반대하거나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결국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이나 태평양지역의 집단안보조약이 아닌, 1950년 1월 26일 주한미군사고문단 설치협정과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들은 양국 의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treaty)보다 한 단계 낮은 협정(agreement)이었으므로 구속력이 없었으며, ‘원조를 통한 방위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전쟁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다.⁹³ 이는 한국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저평가했던 미 군부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⁹⁴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서는 한국 이외 다른 지역에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한국이 원하는 만큼의 원조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⁹⁵

Governance”, DongSung Kim, Ki-Jung Kim and Hahnkyu Park(eds.), *Fifty Years after the Korean War: From Cold War Confrontation to Peaceful Co-existence*(Seoul: KAIS, 2000), pp. 127~154; 정형아, 「이승만·장제스 정부의 군사적 위기, 협력 모색, 그리고 좌절(1949-1950)」, 『軍史』 제112호(2019), 45~82쪽; 옥창준, 「경합하는 ‘태평양’ 구상: 1949년 태평양 ‘동맹’의 재해석」, 『역사연구』 제40호(2021), 257~293쪽.

- 92 「Syngman Rhee → John Myun Chang」(1950년 3월 8일), 國史編纂委員會(편), 앞의 책(1996b), 280~281쪽.
- 93 이완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추진배경과 형성과정」, 김영호 외, 『이승만과 6·25전쟁』(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27~28쪽.
- 94 반면에 국무부는 미국의 위신과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고려하여 정치·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한국정부를 지원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이철순, 「해방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미국의 대한정책(1945-1950) 재고」, 『국제정치연구』제18집 2호(2015).
- 95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 29.

그럼에도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에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이 한국군의 훈련과 장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미국으로부터 군사지원을 받고자 했다. 미국은 한국 방위를 위해 군사 장비를 지원하였는데, 주미한국대사관의 노력으로 한국은 해군함정을 인수할 수 있었다. 당시 한국에는 화포가 장착된 군함이 없었다. 이에 해군참모총장 손원일(孫元一)은 군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승무원 20명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는데, 주미대사 장면에게 600톤급 포함(PC함)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를 주선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⁹⁶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역시도 대한해운공사 사장 김용주(金龍周)를 미국에 보내 김세선에게 해군함정을 구입할 것을 명하였다. 김세선은 이원순(李元淳)과 함께 수소문하여 미국상선단사관학교에서 학생실습선으로 활용되다가 공매로 내놓은 PC-461급 구잠함을 확보하였다.⁹⁷ 처음에는 국무부가 한국 육군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지만 해군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한국정부가 구잠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⁹⁸ 그럼에도 주미한국대사관의 끈질긴 설득 끝에 구잠함을 인수할 수 있었다.⁹⁹ 이때 한국이 인수한 군함은 백두산함(PC-701)이라고 명명되었다. 백두산함은 한국 해군 창설 후 최초의 함포를 갖춘 군함으로 1950년 6월 26일 새벽, 부산에 상륙하려는 조선인민군 특수부대원들을 태운 수송선을

96 홍은혜(暎), 『손원일 제독 회고록: 우리들은 이 바다 위해』(가인기획, 1990), 147~148쪽.

97 「뉴욕한인 이야기/ '해군1호 전투함' 백두산함 구입해 보낸 김세선 참사관」, 《한국일보》, 2011년 9월 22일; 조종무, 「해방 후 뉴욕일원 한인사회(1945-1959)」, 『中央史論』 36호(2012), 566쪽; 李元淳, 『世紀를 넘어서: 海史 李元淳 自傳』(新太陽社, 1989), 338~339쪽.

98 미국이 한국의 공군·해군에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승만은 “북쪽의 공산주의로부터 우리가 남쪽에서 방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Syngman Rhee → John Myun Chang」(1949년 12월 3일), 이승만문서.

99 「Sae Sun Kim → Syngman Rhee」(1950년 4월 11일), 이승만문서.

격침시켜, 부산 방면에서 후방교란을 기도했던 조선인민군의 작전계획을 막는데 공헌하였다.¹⁰⁰

3. 승인외교와 국제기구 가입활동

세계 각국은 국제사회에서 친선관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국제적 지위가 달라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연합 감독 하에 1948년 5·10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한국정부는 1948년 제3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국제연합의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국가주권의 외연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는 많은 국가들과의 관계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갔다.

주미한국대사관은 대미외교 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 대사관 혹은 공사관을 둔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승인외교까지 병행하였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는 세계 각국의 재외공관들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접촉하기가 용이하였다. 한국정부가 승인한 외국 정부를 제외하고¹⁰¹,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한국정부를 승인한 국가의 수는 29개국에 이른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한국정부를 승인한 국가들 대부분이 주미한국대사관이 미국주재 각국 대사 또는 공사, 국제연합 대표와 접견하여 승인 교섭을 벌였던 나라들이다.

100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서강대학교출판부, 2016 [2015]), 119쪽.

101 한국은 인도네시아(1949년 12월 27일 수립)와 베트남(1949년 6월 14일 수립)을 승인하였다. 이 나라들은 한국정부 수립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이다. 「我國 『인』國을 承認 卅一日附로 正式 通告」, 《朝鮮日報》, 1950년 1월 1일자; 「韓國도 越南 承認」, 《自由新聞》, 1950년 3월 4일자.

표3-6·25전쟁 발발 이전 한국정부를 승인한 국가 일람¹⁰⁴

연도	국가명(승인 월일)	계
1949	미국(1월 1일), 중화민국(1월 4일), 영국(1월 18일), 프랑스(2월 15일), 필리핀(3월 3일), 캐나다(4월 9일), 바티칸시국(4월 13일), 칠레(5월 27일), 브라질(6월 2일), 뉴질랜드(6월 20일), 도미니카공화국(6월 20일), 볼리비아(7월 14일), 쿠바(7월 18일), 네덜란드(7월 25일), 그리스(8월 4일), 코스타리카(8월 12일), 튀르키예(8월 13일), 아이티(8월 13일), 오스트레일리아(8월 15일), 벨기에(8월 15일), 룩셈부르크(8월 20일), 엘살바도르(9월 3일), 이란(9월 24일), 태국(10월 4일), 에콰도르(10월 6일), 우루과이(12월 8일), 페루(12월 16일)	27
1950 (6·25전쟁 이전까지)	아이슬란드(2월 12일), 베네수엘라(3월 3일)	2
총계		29

장면은 1949년 1월 5일에 이미 주미교황청대사 치코냐니(Amleto Giovanni Cicognani)와 회동하여 한국정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¹⁰² 이를 시작으로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의 대사 또는 공사와 접견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승인교섭 활동을 벌였다. 이들 나라 외에도 주미한국대사관이 접촉한 국가들로 덴마크, 파나마, 노르웨이, 콜롬비아, 포르투갈, 이집트, 이라크, 인도, 멕시코, 버마, 파키스탄, 니카라과, 온두라스, 에티오피아 등이 있었다.¹⁰³

102 허동현·태수경(편), 앞의 책(2019), 34~35쪽.

103 허동현·태수경(편), 위의 책(2019), 32~35, 42~43, 46~47, 56~57, 62~77, 80~85, 88~89, 92~103쪽.

104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外務部, 「大韓民國重要外交日誌」, 앞의 책(1959), 457~472쪽;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사 연표1』(국사편찬위원회, 2008); 「友邦韓國承認日字訂正」, 《自由新聞》, 1949년 9월 21일자; 「感激 새로운 一年前 오늘 유엔 承認 돌맞이」, 《東亞日報》, 1949년 12월 12일자;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일람표」, 허동현·태수경(편), 앞의 책(2019), 106쪽; 「우루과이國 韓國을 承認」, 《嶺南日報》, 1949년 12월 11일자; 「페루 韓國을 承認」, 《自由民報》, 1949년 12월 18일자; 「아이슬란드·韓國 承認」, 《聯合新聞》, 1950년 2월 14일자; 「『베네수엘라』도 韓國 承認」, 《조선일보》, 1950년 3월 22일자; 「泰國도 韓國 承認」, 《聯合新聞》, 1950년 3월 30일자.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한국을 승인한 나라들 중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인데, 전체 29개국 중에서 12개국에 해당한다. 장면은 워싱턴 D.C.에서 활동 중인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여러 국가들의 대사를 만나서 한국정부를 승인해줄 것을 타진하였다.¹⁰⁵ 주미한국대사관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승인교섭을 벌이고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당시 《경향신문》은 가톨릭 신자인 장면 대사와 가톨릭 교세가 강한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가 작용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¹⁰⁶

이때 한국정부를 인정했거나 주미한국대사관이 접촉했던 많은 나라들이 6·25전쟁 발발 당시 한국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1950년 6월 27일(뉴욕 시각)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보리결의 제83호(S/1511)에 의거하여 조선인민군의 남침을 규탄하고 한국을 원조한다는 결의안¹⁰⁷을 발표했을 때, 결의안에 찬성했던 노르웨이, 쿠바, 에콰도르는 전쟁 이전 주미한국대사관이 직접 교섭했던 나라들이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정부를 승인했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병을 하거나 물자지원 혹은 의료지원을 하였다. 에티오피아(파병), 파나마(재정 지원), 콜롬비아(파병), 이집트(물자 지원), 니카라과(물자지원 의사 표명), 멕시코(식량 지원), 온두라스(재정 지원), 버마(식량 지원) 등은 한국정부를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주미한국대사관이 교섭한 적이 있는 나라들로 전쟁 시기에 한국을 지원하였다. 6·25전쟁 중 한국은

105 장면은 이승만에게 쿠바,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페루,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John Myun Chang → Syngman Rhee」(1949년 11월 23일), 이승만문서.

106 「韓國의 國際的 地位」, 《京鄉新聞》, 1949년 8월 24일자.

107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한국과 유엔” 웹사이트에서 참고. (<https://theme.archives.go.kr//next/unKorea/koreaWar.do>, 검색일: 2021년 1월 27일).

67개국들로부터 지원을 받음으로써 “전쟁 중 가장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동맹(most countries to support an ally in war)”으로 기록되기도 했다.¹⁰⁸ 물론, 이 나라들이 한국을 지원한 동기는 각 나라별로 처해있는 상황과 정세 판단 등에 따라서 제각기 다양했지만, 전쟁 이전 주미한국대사관이 미국주재 각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벌인 승인외교가 한국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미한국대사관은 해외 각국에 대한 승인외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가입을 위한 외교활동도 병행하였다. 주미한국대사관의 외교적 노력으로 한국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or the United Nations, 이하 약칭 FAO)¹⁰⁹에 가입할 수 있었다. 1949년 8월 주미대사관은 FAO에 한국이 가입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의 회원가입 승인 여부는 1949년 1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FAO 제5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표결로 결정되었다.¹¹⁰ 총회에서 기존 회원국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신규가입을 할 수 있었다. 이에 한표욱 일등서기관이 한국대표로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FAO 가입 당위성을 설명하는 연설을 하고, FAO사무총장 도드(Norris E. Dodd)와 회견하여 한국의 FAO 가입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상의하였다.¹¹¹ 이와 같은 노력으로 1949년 11월 25일에 한국은 FAO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미한국대사관은 한국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108 김명섭, 앞의 책(2016[2015]), 130~131쪽.

109 FAO는 인류의 생활 및 영양수준 개선, 식량의 생산 및 분배 효율성 개선, 농촌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세계경제 발전과 인류의 기아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43년 핫스프링스에서 개최된 식량 및 농업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에서 FAO 설립이 논의되었으며 1945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설립총회에서 FAO 헌장을 채택, 1946년 처음으로 국제연합 상설전문기구로 가입하였다.

110 「韓國 FAO 加入申請 接受」, 《東亞日報》, 1949년 8월 6일자.

111 「John Myun Chang → Syngman Rhee」(1949년 11월 22일), 이승만문서.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약칭 UNESC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1950년 3월 21일 제10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는 한국의 UNESCO 가입승인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¹¹² 주미대사관은 브라질, 시리아, 필리핀, 이집트, 파키스탄 등과 교섭하여 한국의 UNESCO 가입 지지를 이끌어냈으며¹¹³, 1950년 6월 14일 한국은 UNESCO 회원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주미한국대사관의 승인외교 및 국제기구 가입활동을 통해서 과거 이방인들에게 ‘은둔의 왕국(Hermit kingdom)’ 또는 ‘고요한 아침의 땅(The Land of the Morning Calm)’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한국이 세계무대에 그 이름을 알리고 본격적으로 교류활동을 하는데 기여하였다. 물론, 이는 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 총회에서의 한국정부에 대한 승인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지만, 후속노력을 기울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국제사회에서의 친선관계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미국의 대한정책에 중점을 둔 한국현대사, 한미관계사 연구에 서는 주미한국대사관의 역사는 특별한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논문은 주미한국대사관의 초기 역사를 다루면서, 당시 긴박했던 한국외교사의 한 장면을 조명해 보고자 했다. 정부 수립 직후 처음으로 대사관이

112 「? → John Myun Chang」(1950년 4월 14일), 이승만문서.

113 「? → John Myun Chang」(1950년 5월 2일), 「? → John Myun Chang」(1950년 5월 8일), 「M. O. A. Baig → John Myun Chang」(1950년 5월 11일), 이승만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사관 개설 작업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새로운 한국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인수하고 국제연합과 미국의 승인을 획득한 후에야 비로소 대사관 설치가 진행될 수 있었다. 주미한국대사관의 외교관들은 외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었고 인력과 경비도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들은 대사관 청사 마련에서부터 대사관 설치, 인사조직 등과 같은 대사관 외교를 위한 기초를 닦는 일부터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주미한국대사관의 설치와 외교활동은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에 비유되기도 했다.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에는 장면, 김세선, 한표옥과 같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외교관으로 부임했으며, 이 가운데 김세선과 한표옥은 주미외교위원부 시절 워싱턴 D.C.에서 활동했고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주미한국대사관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주미외교위원부 혹은 그 이전부터 한국을 위해 활동했던 스태거스와 윌리엄스와 같은 미국인들이 고문으로 위촉되어 대사관 외교를 조력하였다. 당시 한국정부가 비교적 현지 사정을 알고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발탁함으로써 부족한 외교역량을 보완하려고 노력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미국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군사원조를 얻기 위해 노력했으며, 워싱턴 D.C. 소재의 각국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친선관계를 맺고 국제기구 가입 등과 같은 과제들을 수행하였다. 당시 일등서기관 한표옥이 회고했듯이, 신생독립국으로 출발한 한국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외교였다.¹¹⁴ 주미한국대사관의 외교관들은 미국을 상대로

114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의 외교활동에 대해서 한표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내가 참여한 초창기의 대미외교는 어쩌면 후세의 사가들이 구결외교라고 평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때를 남의 힘으로 독립한 약소국가가 다시 강국에 먹이지 않고 자립하기 위한 눈물겨운 몸부림의 단계가 아니었던가 회고한다.” 韓豹瑱, 앞의 책(1984), 8~9쪽.

한국이 처해있는 사정을 알리고 지원을 호소하여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국가들의 개별 승인을 이끌어내고 FAO,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물론, 이와 같은 외교성과를 오롯이 주미한국대사관의 교섭으로 이룬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다. 1948년 한국정부의 국제연합 승인 획득과 냉전이라는 국제정치 질서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의지가 미친 영향력도 큰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원조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경제원조도 순조롭지 못했고 한국이 기대했던 수준의 군사원조와 동맹조약 체결은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전쟁을 예방한다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와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6·25전쟁이 발발하자 주미한국대사관은 새로운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인력과 예산 등 모든 것이 빈약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우위에 있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생존을 위해 절박하고도 처절한 외교를 수행한 주미한국대사관의 노력은 기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京鄉新聞》, 《工業新聞》, 《大韓日報》, 《東光新聞》, 《東亞日報》, 《연합뉴스》, 《聯合新聞》, 《外務月報》, 《商工日報》, 《新韓民報》, 《自由新聞》, 《朝鮮日報》, 《中央日報》, 《한국일보》, 《漢城日報》, *The Sunday Star*.

國史編纂委員會(편), 『大韓民國國史資料集 28: 李承晚關係書翰資料集 1(1944~1948)』.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6a.

_____, 『大韓民國國史資料集 29: 李承晚關係書翰資料集 2(1949~1950)』.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6b.

_____, 『大韓民國國史資料集 37: 李承晚關係書翰資料集 10(1961~1965·기타)』.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7.

_____, 『資料大韓民國史 제10권: 1949年 1~2月』.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9.

_____, 『資料大韓民國史 제11권: 1949年 3~4月』.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9.

_____, 『資料大韓民國史 제12권: 1949年 5~6月』.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9.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9: 주미외교위원부 I』.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7.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소장문서.

태수경·허동현(편), 『장면 시대를 기록하다』. 서울: 샘터사, 2014.

허동현·태수경(편), 『장면, 수첩에 세상을 담다Ⅱ(1949-1951): 6·25전쟁, 호국의 기억』. 과주: 경인문화사, 2019.

황헌친 구술, 나중남·김은비 면담, 2011년 2월 25일~4월 1일, 전쟁기념관 창군동우회 사무실, 『한국군 초기 역사를 듣다: 군사영어학교 출신 예비역 장성의 구술』.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2.

Truman Library 소장문서.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7~48*.

New York: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ited Nations, 1949.

U.S.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XX*, No. 497,

January 9, 1949. Washington, D.C.: Bureau of Public Affairs, 1949.

_____,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로 약함], 1947. *The Far East, Volume V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이하 U.S.G.P.O.로 약함], 1972.

_____, *FRUS, 1949. The Far East and Australia, Volume VII, Part 2*, Washington, D.C.: U.S.G.P.O., 1976.

_____, *FRUS, 1950. Korea, Volume VII*, Washington, D.C.: U.S.G.P.O., 1976.

2. 단행본

國家報勳處(편), 『獨立有功者 功勳錄: 2016年度 褒賞者』第23卷. 세종: 국가보훈처, 2017.

김도민, 「주한미대사관을 통해본 초기 한미 외교관계(1948~1950)」。정용욱(편),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 서울: 푸른역사, 2018.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6[2015].

도널드 스티븐 맥도널드(저), 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역), 『한미관계 20년사 (1945~1965년): 해방에서 자립까지』.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1.

朴實, 『韓國外交秘史』. 서울: 麒麟苑, 1980.

박태균,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파주: 창비, 2014.

이덕희, 「이승만의 종교활동과 교육활동」。오영섭·홍선표 외, 『이승만과 하와이 한인사회』.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外務部, 『外務行政의 十年』. 서울: 外務部, 1959.

윤석 기념회(편), 『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張勉 博士 回顧錄』.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9[1967].

이원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추진배경과 형성과정」。김영호 외, 『이승만과 6·25전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李元淳, 『世紀를 넘어서: 海史 李元淳 自傳』. 서울: 新太陽社, 1989.

李亨根, 『軍番1번의 외길 人生: 李亨根 回顧錄』. 서울: 中央日報社, 1994.

李宰峯, 『韓國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 李承晚外交와 美國政策의 反省』. 서울: 法文社, 2000[1969].

- 林炳稷, 『臨政에서 印度까지: 林炳稷 外交回顧錄』. 서울: 女苑社, 1966.
-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2005.
- 趙鐘武, 『아메리카 대륙의 韓人 風雲兒들 (上)』. 서울: 朝鮮日報社, 1987.
- 차상철, 『해방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 서울: 지식산업사, 1991.
- 최병현,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뉴욕한인교회70년사』. 서울: 깊은샘, 1992.
- 최정림, 『외교관의 아내, 그 특별한 행복』. 서울: 여성신문사, 1998.
- 韓豹頊, 『韓美外交요람기』. 서울: 中央日報社, 1984.
- _____, 『이승만과 한미외교』. 서울: 중앙일보사, 1996.
- 허동현, 『장면: 건국·외교·민주의 선구자』. 칠곡: 분도출판사, 2001.
- 홍은혜(편), 『손원일 제독 회고록: 우리들은 이 바다 위해』. 서울: 가인기획, 1990.

Fisher, J. Earnest, *PIONEERS of MODERN KOREA*.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7.

Kim, Myongsob, "Declined Invitation by Empire: The Aborted Pacific Pact and the Unsolved Issue of Regional Governance". Kim Dong-Sung, Kim KiJung and Park Hahnkyu(eds.), *Fifty Years after the Korean War: From Cold War Confrontation to Peaceful Co-existence*. Seoul: KAIS, 2000.

Oh Kie-chiang John and Oh Cho Bongwan Bonnie, *The Korean Embassy in America*. Seoul: Hollym, 2003.

Oliver T. Robert,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A Personal Narrative*. Seoul: Panmun Book Company Ltd, 1978.

Stueck William,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3. 논문

- 금보은, 「한국정부 수립시기 한미 간 행정권 이양과정과 성격: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제166호, 2014, 337~383쪽.
- 김도민, 「1948~50년 주한미대사관의 설치와 정부활동」. 『韓國史論』 59권, 2013, 217~289쪽.
- 김영호, 「미국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정책에 관한 연구: 태평양전쟁기와 미 군정기 미국의 승인 정책을 중심으로」. 『軍史』 제92호, 2014, 233~263쪽.

- 옥창준, 「경합하는 '태평양' 구상 : 1949년 태평양 '동맹'의 재해석」. 『역사연구』 제40호, 2021, 257~293쪽.
- 이상호, 「초대 주한미국대사 무초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응」. 『亞細亞研究』 61권 1호, 2018, 49~77쪽.
- 이철순, 「한국전쟁 이전 미국의 한국의 가치에 대한 평가」. 『國際政治論叢』 제43집 1호, 2003, 163~183쪽.
- _____, 「해방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미국의 대한정책(1945-1950) 재고」. 『국제정치연구』 제18집 2호, 2015, 67~90쪽.
- 이현진, 「대한민국 정부의 ECA 원조 도입과 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집, 1997, 188~216쪽.
- 정형아, 「이승만·장제스 정부의 군사적 위기, 협력모색, 그리고 좌절(1949-1950)」. 『軍史』 제112호, 2019, 45~82쪽.
- 조종무, 「해방 후 뉴욕일원 한인사회(1945-1959)」. 『中央史論』 36호, 2012, 535~572쪽.
- 허동현, 「대한민국 승인을 위한 수석대표 장면의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1집, 2009, 337~375쪽.
- _____, 「대한민국의 건국외교와 유엔(UN)」. 『송실사학』 제30집, 2013, 253~280쪽.
- 홍순호, 「장면 외교의 명암(1946~1952)」. 『京畿史學』 5권, 2001, 141~186쪽.

Kim Myongsob, "Prologue of the Asia-Pacific Community: Betrayed and Declined Asian Initiatives for Region-building". *Korea Observer* Vol. X X VII, No. 4, 1996, pp. 529~587.

국문초록

이 논문은 주미한국대사관의 초기 역사를 검토한다. 연구의 시기는 대사관 개설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49년 1월부터 1950년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이다. 1949년 3월 25일에 개설된 주미한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사관'으로 한미관계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설치 당시 한국과 수교를 맺은 나라들이 적었고 오늘날과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미한국대사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게다가 워싱턴 D.C.에는 미국의 각 행정부처와 의회, 각국의 재외공관들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미한국대사관은 한국이 미국은 물론, 세계와 통할 수 있는 항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미한국대사관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미한국대사관은 한국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인수하고 국제연합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설치될 수 있었다. 주미한국대사관의 외교관들은 외교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인력,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사관 외교의 기초를 닦는 일부터 해야 했다.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에는 장면, 김세선, 한표욱과 같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외교관들이 부임했으며 미국인 고문들이 대사관 외교를 조력하였다. 주미외교위원부 혹은 그 이전부터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면서 비교적 현지 사정을 알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여 부족한 외교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신생독립국으로 출발한 한국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경제원조, 군사원조 및 안보조약 체결, 국제관계 확대에 관한 과제들을 수행하였다. 비록 미국의 영향력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의 원조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전쟁을 예방한다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한계와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은 미국에 한국이 처해있는 사정을 알리고 원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국가들의 개별 승인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고 FAO,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물론 이와 같은 외교성과를 오롯이 주미한국대사관의 외교활동으로 성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불리했던 국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가생존을 위한 치열한 외교를 수행했던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의 노력은 기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2. 9. 20.

심사일 2022. 11. 16.

게재 확정일 2022. 11. 23.

주제어(keyword) 주미한국대사관(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SA), 이승만(Syngman Rhee), 장면(Chang Myon), 김세선(Kim Sae Sun), 한표욱(Han Pyo Wook), 최운상(Choi Woonsang), 존 W. 스태거스(John W. Staggers), 제이 제롬 윌리엄스(Jay Jerome Williams), 한미관계(ROK-USA Relations), 한국외교사(ROK Diplomatic History)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Diplomatic Activities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SA from 1949 to 1950

Hong, Jun-seok

This article reviews the early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s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The period that this study focuses on is from January 1949, when the Embassy was being established, to just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Previously, very little attention had been given to the history and the role of the ROK Embassy in the U.S. during this period.

The establishment of the Embassy was only possible after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took over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from the USAMGIK and after the UN and the U.S. approved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he ROK Embassy in U.S. began its diplomatic activities with limited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At the time, the Embassy had American-educated diplomats such as Chang Myon, Kim Sae Sun, and Han Pyo Wook were assigned to the Embassy and American advisers assisted in the diplomacy of the Embassy. While working in Washington, D.C., personnel with relatively sufficient diplomatic expertise and relevant local knowledge made up for the Embassy's lack of diplomatic power. And short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Korean Government, ROK was in an economically unstable and military crisis. Therefore, the mission of the ROK Embassy was mainly that of securing economic and military aid as well as promoting mutual defense trea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ue to the U.S. having greater diplomatic leverage over ROK, The ROK Government was unable to receive economic and military aid to the extent that it originally anticipated. Furthermore, this asymmetrical bilateral relations led to other difficulties such as failing to achieve its original goal of preventing war. Nevertheless, the ROK Embassy made efforts to inform the U.S. of the situation in Korea, eventually appealing for help and receiving support.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it contributed to obtaining recognition from various countries and also achieved results of joining FAO and UNESCO. Of

course, these diplomatic achievements were not solely due to the diplomatic activities of the ROK Embassy in the U.S. However, it is important to be reminded that the efforts of the ROK Embassy in the U.S., which has been carrying out diplomatic activities for the survival of the country even in poor domestic and foreign conditions.